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혜숙⁺
아주대학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약자)집단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적 전국조사(N=2000)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주의 가치는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장애인, 북한 사람 및 호남사람 등의 약자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이들을 돕는 정책에 대한 찬성 태도를 예측하지만, 권력 가치 및 자기지도·성취 가치는 이들 약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를 예측해 주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장애인 및 북한사람에 대해 영호남 사람에 대해서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권력 가치는 약자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예측해 주었지만 영남 사람에 대해서는 정적 태도와 연관되었다. 보편주의 가치는 이와 반대로 약자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약자집단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태도를 예측해 주었다. 자기지도 가치는 약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별로 관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양성평등고용제에 대한 반대 태도와 연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수(약자)집단, 태도, 편견, 보편주의 가치, 권력 가치, 자기지도 가치

한 사회의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해 편견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기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해진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보다 다양화·국제화되어지는 추세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집단들이 편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김혜숙, 박수미, 2006). 즉, 이전에 문제가 되던 여성이나 지역에 대한 편견과 차별 대신 혹은 그에 더

하여 학력,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중국동포 및 탈북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적 태도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적 태도나 차별에 개입되어 있는 근본 기제를 밝히는 일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편견이나 차별의 근원으로 고정관념, 학습, 접촉부족 및 사회정체를 들고 있다(Brewer & Brown, 1998; Fiske,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 기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 본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인문사회연구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 : 김혜숙,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전화 : 031) 219-2770, E-mail : hsk@ajou.ac.kr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이 어떠한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태도가 여러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Katz, 1960). Katz(1960)는 태도가 지식 기능(즉, 대상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돕는 기능), 가치 표현 기능(즉,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확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기능), 자아방어 기능(자신에 대한 위협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 및 실용적 기능(즉, 보상을 극대화하고 처벌을 최소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보았다. 후속 연구자(Gastil, 1992; Herek, 1988; Shavitt, 1989)들은 Katz가 제안한 태도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개인적 실용성, 사회적 실용성, 가치표현, 사회적 적응(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사회 정체(즉, 집단에의 소속감을 가지는 것), 자아존중 유지 동기 등이다. 한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는 특히 가치 표현이라든지 혹은 자아방어 기능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도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가치나 동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종 편견에 관한 이론들은 소수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양가감정적 태도(ambivalent racism) 혹은 혐오적 인종주의(aversive racism) 태도는 백인들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가치(즉, 자립주의, 근면주의 혹은 형평에 대한 가치)와 인종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 즉, 백인들이 가지는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는 정부에 의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의 혜택을 받는 흑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한편 인종평등주의의 가치는 흑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여 양가감정을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평 가치가 특출해 지면 백인들에서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에 반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반대로 평등 가치가 특출해 지면 소수 집단에 보다 동조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Mackie, Devos와 Smith (2000)는 사람들이 자신과 상반되는 가치(즉, 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를 가지

는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외집단 성원들은 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가치의 갈등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분노 혹은 두려움)을 유발시켜 서로 대치하거나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Fiske(1998)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정보 처리 과정에 사람들이 가지는 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편견적으로 되도록 하거나 혹은 보다 객관적으로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주요 동기들로 정확한 이해의 동기, 소속의 동기, 통제(즉, 권력)의 동기, 자기높이기 동기 그리고 신뢰의 동기들을 들고 있다. Fiske는 정확한 이해의 동기가 높아지면 편견적 과정이 약해지고, 반면 통제의 동기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편견적 과정이 심해진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들에 대해 Schwartz(1992)는 Rokeach(1973)의 가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10개의 차원들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자기-지도(self-direction, 즉,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 통제와 완성에 대한 가치), 보편주의(일반적 타인들에 대한 배려, 사회정의, 환경, 평등에의 관심) 자비(가까운 타인에 대한 배려, 도움이 되는, 용서하는, 정직한),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독실한), 동조(복종, 자기 통제), 자극(재미있는 생활, 변화있는 생활), 쾌락(쾌락, 삶을 즐기), 성취(야심있는, 성공적인), 권력(사회적 권력, 부, 사회적 인정) 및 안전(국가의 안전, 은혜에 보답, 소속감, 가족의 안전)이다. Schwartz(1992)는 또한 이러한 차원들을 상위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기-고양(자극, 쾌락, 성취, 권력, 안전) 대 자기-초월(자기지도, 보편주의, 자비, 전통/동조), 그리고 변화에 개방적인(보편주의, 자기지도, 자극, 쾌락, 성취) 대 보수적(자비, 전통/동조, 안전, 권력). Schwartz(1992)는 이 가치 척도를 20개국(즉, 호주, 홍콩, 대만, 일본 등)의 사람들에게 실시하여 본 결과, 문화에 상관없이 비슷한 차원의 가치들이 얻어졌다고 보고하였다. Maio와 Olson(1995)은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의 단축판을 실시하여 가치를 측정하여 자선 헌금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을 검토한 결과, 자기초월적 가치와 태도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성격이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민경환(1989)이 보고하고

있다 : 이 연구는 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및 Sanford(1950)가 개발한 권위주의 성격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권위주의적 성격의 대학생들이 덜 권위주의적 성격의 대학생들보다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즉, 호남인, 여성 및 경제적 하층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더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지는 여러 가치들(즉, Schwarz 척도의 가치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평등이나 사회정의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편주의 가치는 북한 사람과의 낮은 사회적 거리감(즉, 친밀한 인간관계 의도), 대북지원 정책이나 민간교류 정책에 대한 찬성 태도를 예언해 주었다. 이와는 반대로 권력 가치는 북한 사람과의 보다 큰 사회적 거리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민간교류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다.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 집단 사람들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면, 그들을 돕는 것이나 관련 정책이 그러한 가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교육 또는 학교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Clary, Snyder, Ridge, Miene, & Haugen, 1994). 예를 들어, Clary 등(1994)은 사람들이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주요 가치 차원과 부합되는(matching) 측면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탈북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 사람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확인하여 이를 고양시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혜숙(2002)의 연구를 확대 반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 집단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대해 전국적 조사를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즉,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성취 가치)가 장애인,

탈북자,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북한사람, 호남사람 및 영남사람에 대한 태도(호감, 신뢰도 및 자녀결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김혜숙의 연구(2002)와 민경환(1989)의 연구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데 반해, 본 연구는 일반인들도 포함한 체계적 전국 조사를 통하여 가치가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민경환(1989)의 연구에서는 소수 집단으로 호남인, 여성 및 하층 계층을 포함하였고 김혜숙(2002)의 연구는 주로 북한사람을 대상 집단으로 포함하였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으로 되고 있는 동남아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집단을 포함한 북한 사람, 호남인 및 영남인 집단에 대한 태도를 대상 집단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권력가치, 보편주의 가치 및 자기지도·성취의 세 가치를 포함시킨 것은 두가지 근거에 의해서이다 : 첫째, 앞에서 기술한대로, 권위주의 성격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 의거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권력 가치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희생양삼기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대로 인종 편견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평등 등을 중요시하는 보편주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 자율 및 성취를 중요시하는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인 자기지도·성취 가치가 편견과의 관련성이 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치를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 Schwartz의 가치 척도들 중 권력가치와 보편주의 가치가 편견적 태도와 보다 강하게 관련되어 나타났고 다른 가치들은 거의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지도·성취가치는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개인주의적으로 됨에 따라 특히 젊은이들에게 보다 중요해지는 가치로 대두되었으므로(김혜숙, 2002; 나은영, 차재호, 1999)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 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집단 범주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가치에 의해 일관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데에 그 의미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면 보편주의 가치는 정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권력 가치는 자

기 고양 가치로서, 권력을 중요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리라는 것이다. 혹은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강자에게 복종하고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보다 공격적이라는 Adorno 등(1950)의 권위주의 성격 이론에서도 이러한 예측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보편주의 가치는 초월 가치로서 평등과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약자 집단에 대한 보다 평등적 태도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지도·성취 가치는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로서 개인의 독립과 자유 및 성취를 추구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개인의 능력과 경쟁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형평원칙을 신봉하게 되기 쉽고, 그에 따라 이러한 가치는 약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혹은 약자집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를 예언해 주리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각 대상 집단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들에 대한 차별의 시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가치의 영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적 조사 연구이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 소수 집단에 대해 가지는 호감도, 신뢰도 및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인구학적 변인별로 달라지는 지를 검토하고, 또한 가치에 대해서도 인구학적 특성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 법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표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표집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이었다. 전국(제주도 제외)을 단위로 성, 연령, 지역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모집단의 성, 연령, 지역 비율은 200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갖고 개별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04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었다.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2\%$ 이다. 이 설문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지각에 관한 보다 포괄적 조사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 포괄적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총 2000명으로 사회·인구학적 분포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조사 문항

본 연구에 포함된 문항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지각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 설문지(“차별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수용성 연구”)의 문항들 중 일부로, 가치척도 문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범 주	남성	여성	계
연령	20대	239(12.0)	226(11.3)	465(23.3)
	30대	257(12.9)	247(12.3)	504(25.2)
	40대	229(11.4)	219(11.0)	448(22.4)
	50대	128(6.4)	128(6.4)	256(12.8)
	60세 이상	135(6.7)	192(9.6)	327(16.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0(3.5)	116(5.8)	186(9.3)
	100-200만원 미만	264(13.3)	213(10.7)	477(24.0)
	200-300만원 미만	310(15.6)	332(16.7)	642(32.3)
	300-400만원 미만	192(9.7)	201(10.1)	393(19.8)
	400만원 이상	147(7.4)	141(7.1)	288(14.5)
학력	중졸 이하	128(6.4)	240(12.0)	368(18.4)
	고졸	358(17.9)	457(22.9)	815(40.8)
	대재 이상	502(25.1)	315(15.7)	817(40.8)

표 1. 계속

	범 주	남성	여성	계
직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0(1.5)	2(0.2)	22(1.7)
	전문가	32(2.4)	27(2.0)	59(4.4)
	기술공 및 준전문가	58(4.3)	34(2.5)	92(6.8)
	사무 종사자	154(11.5)	100(7.5)	254(19.0)
	서비스 종사자	73(5.5)	82(6.1)	155(11.6)
	판매종사자	261(19.5)	181(13.6)	442(33.1)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20(1.5)	14(1.0)	34(2.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14(8.5)	22(1.7)	136(10.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9(2.9)	2(0.2)	41(3.1)
	단순노무 종사자	64(4.8)	38(2.8)	102(7.6)
권역	서울	219(10.9)	225(11.2)	444(22.2)
	경기/인천/강원	285(14.3)	287(14.3)	572(28.6)
	대전/충청	101(5.0)	103(5.2)	204(10.2)
	광주/전라	109(5.4)	114(5.7)	223(11.1)
	대구/경북	110(5.5)	112(5.6)	222(11.1)
	부산/울산/경남	164(8.2)	171(8.6)	335(16.8)
거주지규모	대도시	479(24.0)	493(24.6)	972(48.6)
	중소도시	402(20.1)	413(20.6)	815(40.7)
	군 지역	107(5.3)	106(5.3)	213(10.6)

항들과 여러 소수 집단들에 대한 태도(즉, 호감도, 신뢰성 및 사회적 거리감) 문항 및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이었다.

가치척도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를 단축하여 만든 Maio와 Olson(1995)의 단축판을 김혜숙(2002)이 번안하고 요인 분석하여 선정한 문항들로 이루어진 가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치를 반영하는 총 13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가치들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8점 척도상(0 : 중요하지 않음, 7 : 극히 중요함)에서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 자신이 거부하는 가치일 경우는 -1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들은 평등, 사회정의, 마음이 넓음, 환경보호, 정직 및 도움이 됨의 6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권력 가치는 사회적 권력, 사회적 인정 및 권위의 3문항, 그리고 자기지도 가치는 자유, 독립성, 야망 있음 및 성공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집단에 대한 태도

우리나라의 여러 소수 집단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섯 개의 집단을 태도 조사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집단은 장애인, 동남아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북한주민 및 호남사람이었다. 다른 하나의 대상 집단은 ‘영남사람’이었는데 이 집단은 우리 사회 소수 집단은 아니지만 호남사람 및 다른 소수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포함되었다.

이 집단들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즉, 각 집단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호감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보는지(신뢰성),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이 집단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 지(사회적 거리감)를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종속 측정으로 삼았다. 이중 호감도와 신뢰성은 5점 척도(1=매우 싫다(불신), 5=매우 좋다(신뢰))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고, 사회적 거리감은 4점 척도(1=자녀와의 결혼을 매우 반대, 4=매우 찬성)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분석에서는 역산하여 점수가 클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정책에 대한 태도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이나 논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차별금지법, 공무원 양성평등고용제, 장애인고용할당제 및 정년연장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찬성, 반대 혹은 모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결 과

각 집단에 대한 태도 평가

각 대상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및 사회적 거리감(즉, 자녀와 결혼시키겠다)에 대한 평가 점수에 대해 각각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그 평가 평균이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대상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및 사회적 거리감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한사람(영남인, 호남인)에 대해서는 중간 이상의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반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호감도와 신뢰도를 표시하였으며, 북한사람과 특히 새터민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호감도와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자신의 자녀와 결혼을 시키겠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호감도, 신뢰성 평가에 비해 낮아져 새터민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비슷하였다.

표 2. 대상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및 사회적 거리감 평균

대상 집단	호감도 (SD)**	신뢰성 (SD)**	사회적거리 (SD)**
동남아외국인노동자	2.76 (.64)	2.69 (.65)	3.51 (.60)
장애인	2.98 (.65)	3.20 (.70)	3.43 (.62)
새터민	2.76 (.72)	2.67 (.69)	3.42 (.68)
북한사람	2.85 (.69)	2.77 (.68)	3.27 (.79)
호남사람	3.12 (.77)	3.13 (.76)	2.39 (.87)
영남사람	3.30 (.72)	3.33 (.69)	2.19 (.68)

- 주 1. 호감도와 신뢰도는 5점 척도(1 : 매우 싫다(믿을 수 없다), 5 : 매우 좋다(믿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4점 척도로 (1 : 자녀와 결혼 매우 반대, 4 : 매우 찬성), 점수(역산함)가 클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멀음(즉, 덜 친밀함)을 의미함. 이하 모든 표에서 동일함.
2. 호감도 $F(5, 9995)=235.27$; 신뢰성 $F(5, 9995)=461.60$; 사회적 거리 $F(5, 9995)=1882.28$
3. 모든 ** $p < .01$

다음, 각 대상 집단별로 인구학적 변인이 각 태도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장애인이나 새터민과의 사회적 거리감이 더 컸고(즉, 덜 친근하게 느꼈고) 또한 새터민이나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았다. 학력의 영향을 검토해 보면, 새터민 및 북한사람에 대해서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우보다 더 호의적 태도(즉, 더 낮은 사회적 거리감)를 보였다. 나이의 영향에 있어서는, 대체로 노동자, 장애인 및 새터민에 대해서 20대가 30대 이상에 비해 더 낮은 사회적 거리감(즉, 더 친밀함)을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군 지역 거주자가, 또한 호남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치 평가

먼저, 각 가치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에 대해 각각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각 인구학적 변인별 가치 평가 평균과 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주의 가치를 제일 중시하고($M=5.47$), 그 다음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인 자기지도 및 성취를 중시하였고($M=5.37$), 권력 가치를 제일 낮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M=4.24$). 평등과 사회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경향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와 조사대상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보편주의 가치는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충청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권력과 사회적 인정 등을 중시하는 권력 가치는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수록, 대도시거주자일수록 또한 수도권 거주자 혹은 영남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호남사람들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자유 및 개인성취 등의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대재이상에서, 30-40대에서,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충청 지역 응답자에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 가치 패턴을 볼 때, 20대에 있어서는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의 신봉 정도가 유사하였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보편주의 가치가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인구학적 변인별 대상 집단에 대한 태도

	장애인거리감	새터민호감	새터민거리감	북한주민호감		
성별						
남(988)	3.40(.64)*	2.81(.73)**	3.39(.68)*	2.88(.69)*		
여(1012)	3.45(.60)	2.72(.71)	3.46(.63)	2.82(.69)		
전체	3.43(.62)	2.77(.72)	3.42(.66)	2.85(.69)		
	새터민거리감	북한주민거리감				
학력						
중졸이하(368)	3.38(.68) _a *	3.14(.73) _a **				
고졸(815)	3.47(.65) _a	3.29(.71) _b				
대재이상(817)	3.40(.65) _a	3.26(.69) _b				
전체	3.42(.66)	3.25(.70)				
	외국노동자호감	외국노동자거리감	장애인호감	장애인거리감	새터민거리감	북한거리감
가구소득						
100미만(185)	2.85(.68) _a **	3.36(.61) _a **	3.07(.62) _a *	3.29(.58) _a **	3.26(.73) _a **	3.04(.75) _a **
100-200(477)	2.85(.68) _a	3.42(.67) _a	3.02(.72) _a	3.35(.68) _{ab}	3.35(.69) _a	3.17(.73) _{ab}
200-300(392)	2.74(.61) _a	3.55(.59) _b	2.97(.61) _a	3.46(.61) _{bc}	3.44(.66) _{bc}	3.27(.70) _{bc}
300-400(393)	2.73(.65) _a	3.57(.54) _b	2.93(.61) _a	3.49(.59) _c	3.51(.59) _c	3.35(.65) _c
400이상(287)	2.73(.64) _a	3.62(.53) _b	2.93(.65) _a	3.48(.58) _{bc}	3.49(.62) _{bc}	3.30(.68) _{bc}
전체	2.77(.64)	3.51(.60) _b	2.98(.65)	3.43(.62)	3.42(.66)	3.25(.70)
	외국노동자호감	외국노동자거리감	장애인거리감	새터민거리감	북한주민거리감	
거주지규모						
대도시(971)	2.74(.67) _a **	3.56(.56) _a **	3.48(.60) _a **	3.46(.64) _a **	3.28(.69) _a **	
중소도시(814)	2.81(.61) _a	3.48(.61) _b	3.38(.62) _a	3.42(.66) _a	3.27(.70) _a	
군지역(212)	2.79(.65) _a	3.41(.67) _b	3.35(.65) _b	3.27(.72) _b	3.01(.77) _b	
전체	2.77(.64)	3.51(.60)	3.43(.62)	3.42(.66)	3.25(.70)	
	외국노동자호감	외국노동자거리감	장애인호감	장애인거리감	새터민호감	새터민거리감
조사대상지역						
수도권(952)	2.72(.64) _b **	3.59(.56) _a **	2.94(.62) _a **	3.46(.59) _a **	2.76(.71) _a **	3.49(.62) _a **
충청지역(204)	2.69(.71) _{ab}	3.56(.64) _{ab}	3.17(.74) _b	3.42(.72) _{ab}	2.59(.82) _{bc}	3.47(.70) _a
호남지역(223)	2.86(.63) _{bc}	3.42(.63) _b	3.06(.62) _{ab}	3.28(.64) _b	2.99(.72) _a	3.19(.72) _b
영남지역(558)	2.85(.62) _c	3.46(.58) _b	2.94(.64) _a	3.45(.60) _a	2.73(.68) _b	3.40(.65) _a
전체	2.77(.64)	3.53(.59)	2.98(.64)	3.43(.62)	2.76(.72)	3.43(.66)
	북한주민호감	북한주민거리감				
수도권(952)	2.85(.64) _b **	3.30(.68) _a **				
충청지역(204)	2.65(.91) _a	3.27(.83) _a				
호남지역(223)	3.10(.65) _c	2.95(.73) _b				
영남지역(558)	2.82(.65) _b	3.26(.66) _a				
전체	2.85(.69)	3.25(.70)				

주 1.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및 북한 사람에 대한 호감과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만 표기함.

2. * $p < .05$, ** $p < .01$

3. 두 평균값이 동일한 아래 첨자를 포함하면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4. 인구학적 변인별 가치 점수 평균(표준편차)

인구학적 변인(N)	보편주의	권 력	자기지도 · 성취
성별			
남(988)	5.47(1.05)	4.21(1.43)	5.42(1.11)*
여(1012)	5.47(1.02)	4.26(1.33)	5.31(1.05)
전체	5.47(1.04)	4.24(1.38)	5.37(1.08)
학력			
중졸이하(368)	5.42(.90)	4.27(1.33)	5.21(1.00)* _a
고졸(815)	5.48(1.08)	4.20(1.36)	5.36(1.10) _{ab}
대재이상(817)	5.48(1.05)	4.26(1.43)	5.45(1.08) _b
전체	5.47(1.04)	4.24(1.38)	5.37(1.08)
연령			
20대(465)	5.34(1.17)* _a	4.17(1.46)	5.33(1.23)** _{ab}
30대(504)	5.51(1.06) _{ab}	4.21(1.40)	5.46(1.07) _a
40대(448)	5.55(.94) _b	4.29(1.31)	5.45(.98) _a
50대 이상(583)	5.48(.96) _{ab}	4.29(1.36)	5.25(1.02) _b
전체	5.47(1.04)	4.24(1.38)	5.37(1.0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186)	5.36(1.17)	3.95(1.47)* _a	5.22(1.11)* _a
100~200만원(477)	5.45(1.05)	4.08(1.40) _a	5.31(1.08) _a
200~300만원(642)	5.45(.97)	4.23(1.35) _a	5.38(1.06) _a
300~400만원(393)	5.53(1.06)	4.53(1.26) _b	5.43(1.08) _a
400만원 이상(288)	5.58(1.02)	4.35(1.44) _b	5.50(1.05) _a
전체	5.47(1.04)	4.25(1.38)	5.37(1.07)
거주지 규모			
대도시(972)	5.52(1.05)	4.40(1.39)* _a	5.41(1.11)
중소도시(815)	5.42(1.04)	4.15(1.36) _b	5.35(1.05)
군지역(213)	5.47(.95)	3.87(1.34) _c	5.28(1.04)
전체	5.47(1.04)	4.24(1.38)	5.37(1.08)
조사대상지역			
서울경기인천(952)	5.48(1.05)* _{ab}	4.36(1.37)* _a	5.42(1.05)* _a
대전충남충북(204)	5.69(1.05) _a	4.18(1.28) _{ab}	5.51(1.04) _a
광주전주전남전북(223)	5.37(1.06) _b	3.81(1.34) _b	5.24(1.12) _a
부산대구경북경남(557)	5.45(.97) _b	4.28(1.43) _a	5.34(1.09) _a
전체	5.48(1.04)	4.26(1.38)	5.39(1.07)

주 1. * $p < .05$, ** $p < .01$

2. 두 수치가 동일한 아래첨자를 포함하면 $p > .05$ 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3. 성에 따른 자기지도 가치 $F(1, 1998)=4.71, p < .05$; 학력에 따른 자기지도 가치 $F(2, 1997)=6.22, p < .01$; 연령별 보편주의 가치 $F(3, 1996)=3.58, p < .05$; 연령별 자기지도 가치 $F(3, 1996)=5.52, p < .01$; 가구소득별 권력가치 $F(4, 1981)=8.44, p < .01$; 가구소득별 자기지도 가치 $F(4, 1981)=2.72, p < .05$; 거주지규모별 권력 가치 $F(2, 1997)=15.69, p < .01$; 조사지역별 보편주의 가치 $F(3, 1932)=3.81, p < .01$; 조사지역별 권력 가치 $F(3, 1932)=9.62, p < .01$; 조사지역별 자기지도 가치 $F(3, 1932)=3.02, p < .05$

가치가 소수 집단 및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향에 대한 표준 회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각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표 5에 각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가치의 영향
 한 결과 분석은 각 종속측정치에 대해 세 가치가 미치는 을 표시해 주는 β 값이 나타나 있다. 표 5에 나타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5. 보편주의, 권력, 자기지도·성취의 주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예언하는 정도의 회귀분석결과(β)

기준변인 예언변인	호 감	신뢰	사회적 거리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보편주의	.049	.084**	.019
권력	-.089***	-.004	.005
자기지도·성취	-.003	-.040	.054<sup>.10
R ²	.007	.004	.005
장애인			
보편주의	.170***	.150***	-.038
권력	-.129***	-.108***	.036
자기지도·성취	.005	.045	.046
R ²	.034	.031	.003
새터민			
보편주의	.056<sup>.10 <td>.090**</td> <td>-.042</td>	.090**	-.042
권력	-.100***	-.023	.059*
자기지도·성취	.021	-.002	.023
R ²	.010	.007	.004
영남사람			
보편주의	.099**	.106***	-.038
권력	.067**	.087***	.027
자기지도·성취	-.112***	-.084**	-.008
R ²	.009	.013	.002
호남사람			
보편주의	.038	.062*	-.008
권력	.046<sup>.06 <td>.039</td> <td>.041<sup>.10 </td>	.039	.041<sup>.10
자기지도·성취	-.086*	-.101**	-.013
R ²	.004	.006	.001
북한사람			
보편주의	.079*	.080**	-.036
권력	-.113***	-.024	.071**
자기지도·성취	-.001	-.002	.037
R ²	.013	.006	.006

주 1. *p<.05, **p<.01, ***p<.001
 2. 호감과 신뢰는 점수가 클수록, 사회적 거리는 점수가 작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대로 그리고 예상한대로 보편주의 가치는 동남아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및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즉, 호감·신뢰)를 정적으로 예언해 주었으며, 반대로 권력가치는 이러한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호감·신뢰)를 부적적으로 예언해 주었다. 자기지도·성취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치가 소수 집단과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보다 약하게 나타났으나 권력 가치는 새터민, 호남사람 및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부적적으로 연관되었다. 또한, 권력가치는 소수 집단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영남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예언을 해 주었으며, 호남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호감도)과 부적 영향(사회적 거리)을 모두 나타내 일관성 없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자기지도 및 성취가치는 영남과 호남 사람에 대한 부적 태도와 상관을 보여 성취나 자유를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호남과 영남 사람들을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약자 집단에 대한 태도는 별로 예측해 주지 못하였다.

다음,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들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표준판별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에서 보듯이, 예상대로 세 가치를 통합한 단일 변별 함수는 차별금지법($\chi^2(3)=14.34, p<.01$), 양성고용평등제($\chi^2(3)=48.38, p<.01$) 및 장애인고용할당제($\chi^2(3)=23.96, p<.01$)에 대한 찬반태도를 유의미하게 구분해 주었고, 정년연장론($\chi^2(3)=6.47, p<.10$)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보편주의 가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양성고용평등제 및 장애인고용할당제와 같은 제도에 찬성하는 태도를 제일 잘 예언해 주었고.

표 6. 가치가 정책 찬반에 대해 가지는 변별력

가 치	표준화된 Canonical 판별함수계수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고용제	장애인고용할당제	정년연장론
보편주의가치	1.09**	1.16**	.39**	.37
권력가치	.02	-.26	.11**	.91**
자기지도·성취가치	-.14	-.19*	.65	-.17
$\chi^2(3)$	14.34**	48.38**	23.96**	6.47†

*p<.05, **p<.01, ***p<.001, †p<.10

권력가치는 정년연장론에 대한 찬성 태도를 예언해 주었으며 한편 양성평등고용제에 대한 반대 태도와 약하게 상관되었다.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는 양성평등고용제에 대한 반대의 태도 및 장애인 고용할당제에 대한 찬성의 태도와 연관되었다.

논 의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장애인·새터민 및 북한사람 등 우리 사회의 약자 집단에 대해 영호남 사람들에 대해서보다 덜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 중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새터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어서 북한사람에 대한 태도와도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이들이 우리 사회의 편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약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성들, 학력이 보다 높은 사람들, 30대 이상, 부자일수록, 대도시 거주자, 호남이외의 지역민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수 집단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은 이들 약자 집단·새터민·장애인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부정적 태도(즉, 사회적 거리감)를 보여, 다른 약자 집단들의 태도와는 괴리가 있다. 실상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새터민이나 북한사람에 대해 더 부정적인 사회적 거리감(즉, 결혼 의사)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이전 연구(김혜숙, 2002)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 여자대학생들은 남자대학생들에 비해 미국사람과의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으나 북한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결혼을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더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가 사회의 약자보다는 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보다 선호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2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서보다 보편주의 가치 신봉이 낮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사회정의나 평등과 같은 보다 자기초월적이면서 변화에 개방적인 가

치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진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다 개인주의적이면서 자기고양적인 가치인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에 대해서도 30-40대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 가치 패턴을 볼 때, 20대에 있어서는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지도·성취 가치의 신봉 정도가 유사하였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보편주의 가치가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에 있어서 자기초월적인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고양적인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가 비슷한 정도로 신봉된다는 사실은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보다 개인주의적인 성취나 독립성 및 자유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권력가치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이하 규모의 거주지에 사는 사람보다, 또한 서울경기 지역민과 영남지역민이 충청·호남 지역민보다 더 높게 나타내어, 우리 사회의 강자집단일수록 약자보다 더욱 권력 가치가 높음을 지적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대로, 평등 및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호감과 신뢰적 태도와 상관이 있으며 또한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호감·신뢰 및 사회적 거리감)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가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한 김혜숙(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일반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편주의 및 권력 가치가 우리 사회의 여러 다양한 소수 집단(즉,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및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일관된 형태로 예측해 준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보편주의 가치는 또한 소수 집단에 대한 일반적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별 금지법이나 양성평등고용법과 같은 소수 집단을 위한 구체적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상당히 잘 예언해 준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 준다.

권력 가치가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은 김혜숙(2002)의 연구뿐만 아니라 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및 Sanford

(1950)의 Frankfurt 학파에서 주장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는 민경환(1989)이 검토한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들이 덜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들보다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즉, 호남인, 여성 및 하층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더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성격에 의해서이건 가치에 의해서이건, 권력과 힘을 신봉하는 경향성이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및 새터민 등에 대한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권력 가치는 새터민과 북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여기서는 사회적 거리감)와도 상관을 보여 김혜숙(2002)의 연구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흥미롭게도 권력 가치는 영남 사람들에 대한 호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소수 집단 사람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함을 보여 준다. 즉, 권력 가치는 영남사람들과 같은 우리 사회의 강자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약자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와 상관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보편주의 가치와 달리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태도를 그다지 잘 예측해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면 본 연구에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척도로 측정하지 않고 단순한 찬반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된 결과일 수 있다.

자기도도·성취 가치는 자신의 성취와 독립성 및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로 예상과는 달리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를 별로 예측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가치는 양성평등고용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러나 한편 장애인고용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의 태도를 예언해 주어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가치는 영남 사람과 호남사람들에 대한 부적 태도와 연관되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결과는 독립성과 자유 및 성취를 중요시하는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영남·호남사람들과 같이 서로 집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패거리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의 약자집단들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부정적이지도 않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권력가치와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와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지만, 이러

한 영향력의 전체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치의 영향력의 의미를 유보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결론지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보편주의 가치나 권력 가치가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여러 실제 상황에서 가치는 미치는 영향력은 본 연구에서처럼 지필검사로 물어본 조사의 경우와 달리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Katz & Hass(1988)의 연구에서 평등주의 혹은 프로테스탄트(형평주의) 가치가 점화되었을 때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변화하였다. 또한,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태도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크기가 작았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의 사회적 의미는 실로 중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 온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이러한 태도를 수정하려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미약하더라도 편견 감소를 위한 사회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치가 약자집단에 대한 태도를 예측해 준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는 주로 호감도와 신뢰도에 국한되었고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권력가치가 새터민과 북한사람에 대한 태도와 부적으로 연관된 결과 외에는 덜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감은 태도에 대한 측정이지는 않지만 일면 행동 의도에 대한 측정으로 단순한 호감도나 신뢰도 평가보다 실생활의 행동과 보다 더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가치의 영향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게 나온 본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의미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 거리감은 ‘자녀와 결혼시키겠다’는 한 문항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이는 분명히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다른 태도 문항과 달리 일상생활의 한 구체적 행동에 대한 측면만 포함하므로 그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거리감의 측면(예를 들어, 친구로 삼겠다, 같은 집단에 포함시키겠다 등)을 포함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가치가 약자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가치가 상황요인으로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약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약자집단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가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약자집단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가치를 공략하는 설득메시지(예컨대, ‘약자집단을 배려하여 사회 통합을 이룰 때에만 우리나라가 보다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등)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설득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약자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편견적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약자 집단이 가지는 가치가 그들이 강자 집단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적 가치를 보다 높게 신봉하는 세터민들이 남한 사람들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적 가치를 보다 고취시키고, 한편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 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사회정의나 평등을 신봉하는 경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유나 개인의 성취 등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의 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보편주의 정신을 충분히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이와 아울러, 보편주의 가치가 보다 가용화 되도록 하는 사회 환경의 조성과 문화 규범의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35-50.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김혜숙, 박수미 (2006). 집단 지위 정당성, 지위안정성 및 집단정체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과 학력차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71-95.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Adomo, T., Frenkle-Brunswick, E., Levinson, D.,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554-594). New York: McGraw-Hill.
-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Miene, P. K., & Haugen, J. A. (1994). Matching messages to motives in persuasion: A functional approach to promoting volunteer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3), 1129-1149.
- Fiske, S. T. (199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357-411). New York: McGraw-Hill.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Diego, CA: Academic and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61-89). San Press.
- Gastil, J. (1992). Why we believe in democracy: Testing

- theories of attitude functions and democrac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6), 423-450.
- Herek, G. M. (1987). Can functions be measured? A new perspective on the functional approach to attitud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85-303.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New York : Routledge, Chapman & Hall.
- Katz, I.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 Katz, I., & Hass, R. G.(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Mackie, D. M., Devos, T., & Smith, E. R. (2000). Intergroup emotions :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02-616.
- Maio, G. R., & Olson, J. M. (1995). Relations between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 fun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266-285.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 Fress Press.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havitt, S. (1989). Operationalizing functional theories of attitudes.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311-337).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The Effect of Values on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 in Korea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whether the values people endorsed predicted the attitudes toward minority group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 examined through a nation-wide survey ($N=2000$) whether the value of universalism predicted positive attitudes toward minority groups such as East-Asian workers, the disabled,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s, and Honam people, while the values of power and self direction · achievement predicted negatively the attitudes toward these minority groups. I also examined the effect of these values on the attitudes toward the governmental policies for the minority group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Korean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s East-Asian workers, the disabled,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s than towards Honam and Youngnam people.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generally supported the hypotheses. That is, power value predicted negative attitudes towards minority groups while it was related to positive attitudes toward Youngnam people. On the other hand, universalism value that people held predicted positive attitudes toward minority groups as well as positive attitudes toward policies for the minorities. I discussed these results in terms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words: minority groups; prejudice; universalism value; power value; value of self-direction · achievement

원고접수 : 2007년 10월 12일

심사통과 : 2007년 11월 6일